

마태오 복음서 26장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마르 14,1-2; 루카 22,1-2; 요한 11,45-53)

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 2 “너희도 알다시피 이들이 지나면 파스카인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 3 그때에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카야파라는 대사제의 저택에 모여,¹⁾
- 4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²⁾
- 5 그러면서도 “백성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 1) 예수님께서서는 닥쳐오는 위험을 이제는 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수난을 직접적인 말투로 예고하시며 당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신다.³⁾
- 2) “파스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 곧 이때부터 당신의 수난이 시작됨을 예고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넘기시는 것이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마르 14,3-9; 요한 12,1-8)

- 6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 7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 8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불쾌해하며 말하였다. “왜 그렇게 허투루 쓰는가?
- 9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 10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 11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⁴⁾
-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

1) 마태오 복음사가는 가야파가 수행한 역할을 부각시킨다. 가야파는 한나스의 사위로서, 기원후 18년에서 36년까지 “대사제”, 곧 유대교 사제단의 최고 우두머리이며 최고 의회의 의장이었다(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49쪽, 각주 4 참조)

2) 시편 2,1-2 :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겨레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받은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49쪽, 각주 2 참조.

4) 신명 15,11 : 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 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 1)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 의식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장례는 후기 유다교에서 권장하는 선행 가운데 하나이다.⁵⁾ 유다교 라빠들에 따르면 다른 이들을 장사지내 주는 일은 자선과는 달리 개인적인 투신이 요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과 산 이들은 물론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선행이다.⁶⁾
- 2) 향유를 붓는 이 선행은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⁷⁾
- 3)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기며, 선한 일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위선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마르 14,10-11; 루카 22,3-6)

14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 1) “은돈 서른 닢”은 남의 종이 자기 소에게 받혀 죽었을 때 내는 금액이다.⁸⁾
- 2) 향유를 부은 여인과 유다의 행동이 대비된다.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였지만, 유다는 은돈 서른 닢에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다.
- 3)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이었다. 예수께서도 그를 따르는 자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⁹⁾
- 4) 유다의 불신앙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⁰⁾ 하느님의 능력은 사탄의 힘보다 강하다. 그러나 자유의지로 불신앙에 빠지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늘 경계해야 할 일이다.

5) 토빗 1,17 :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백성 가운데 누가 죽어서 니네베성 밖에 던져져 있는 것을 보면 그를 묻어 주었다.

6)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0쪽, 각주 10.

7)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0쪽, 각주 11.

8)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0쪽, 각주 14 참조.

탈출 21,32 :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9) 요한 6,64 :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10) 루카 22,3 : 그런데 사탄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마르 14,12-16; 루카 22,7-13)

- 17 무교절¹¹⁾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 18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 19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정해진“때”에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때이다.¹²⁾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마르 14,17-21; 루카 22,21-23; 요한 13,21-30)

- 20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 21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 22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 24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 25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1) 예수님께서 누군가 배신하리라고 예고하신 뒤에, 배신자를 가리키시고 마침내

11) 탈출 12,14-20 :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 안에서 누룩을 치워 버려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 내가 너희 부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하룻날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레 동안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려 나갈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0쪽, 각주 18.

배신자 유다가 드러난다.¹³⁾

- 2) 공동 식사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유다는 배심함으로써 이 친밀한 공동체에서 이탈한다.
- 3) "스승님"이라고 호칭에는 예수님에 대한 유다의 불신이 들어 있다. 그리고 "저는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배반을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 4)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맞다. 네가 배신자임을 스스로 밝혔다"라는 뜻으로 이해된다.¹⁴⁾

성찬례를 제정하시다(마르 14,22-26; 루카 22,14-20; 1코린 11,23-25)

- 26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27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¹⁵⁾
- 28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 2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 30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옛날 시나이에서 희생 제물들의 피로 체결된 "계약"¹⁶⁾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써, 예언자들이 예고한 "새 계약"¹⁷⁾을 당신께서 완수하신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선언하신다. 또 "많은

1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1쪽, 각주 20 참조.

14)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1쪽, 각주 24.

15) 1코린 10,16 :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16) 탈출 24, 4-8 :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둘을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17) 예레 31,31-34 :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 줄 계약은 이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사람”을 위한, 곧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공포하신다.¹⁸⁾

- 2) 미사 중 사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발음할 때,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 변화한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마르 14,27-31; 루카 22,31-34; 요한 13,36-38)

31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33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3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5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 1) 제자들은 메시아께서 승리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신다. 이러한 사실이 모든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¹⁹⁾

- 2) 제자 중 가장 용감했던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 용기는 나약함으로 변하여 여지없이 무너진다. 곧 제자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된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마르 14,32-42; 루카 22,39-46)

3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37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18)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1쪽, 각주 27.

19)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2쪽, 각주 31.

- 38 그때에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 39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²⁰⁾
- 40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
-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 42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 43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 4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²¹⁾
-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 46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 1) 마태오 복음사가는 메시아의 완전한 순종, 그리고 이차적으로, 유혹 중에 바치는 기도의 전형을 강조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도의 강렬함을 드러낸다.²²⁾ ‘세 번’은 완전함을 뜻하기에,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 2)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승복함을 뜻한다. 그리고 수난의 잔을 받아들이신다.
- 3) 제자들은 주님과 반대로 잠에 취해 있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를 의미한다.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이다.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길이요 힘이다.

잡히시다(마르 14,43-50; 루카 22,47-53; 요한 18,1-11)

47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20) 히브 5,7-10 :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하느님에게서 멜키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었습니다.

21) 2코린 12,8 :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22)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2쪽, 각주 35 참조.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 48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 49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 50 예수님께서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그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 51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 52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²³⁾
- 53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 54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 55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나?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 56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²⁴⁾

- 1) 입맞춤은 애정의 표시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인사이다. 유다는 위선적인 입맞춤으로 배신을 드러냈다.
- 2) 예수님께서 유다에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라고 말을 건네신다. 이는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며, 이를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²⁵⁾
- 3)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두려움에 스승을 배신한다.

최고 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마르 14,53-64; 루카 22,54.66-71; 요한18,12-14.19-24)

- 57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23) 창세 9,6 :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자도 사람에게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묵시 13,10 :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24) 묵시 13,7 : “칼아, 나의 목자를 거슬러, 내 동료를 거슬러 깨어 일어나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목자를 쳐서 양 떼가 흩어지게 하여라. 나도 손을 돌려 그 새끼들을 치리라.

25)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3 쪽, 각주 48 참조.

58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 1)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은 아마도 새벽에 모였다. 낮이 두려운 자들의 전형적인 모임 형태이다.
- 2) 베드로는 멀리 달아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나설 용기 없는 방관자의 모습이다.

59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60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61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수석 사제들과 최고 의회는 예수님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찾고자 한다. 즉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꿰맞추려고 하나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62 그러자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리오?” 하고 물었다.

6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 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6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1)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모호한 상황 속에 놓이기를 거부하시며, 천상 존재인²⁶⁾ 사람의 아들의 재림과 ‘하느님의 오른쪽’ 앉게 되어 있는²⁷⁾ 다윗 자손의 특권을 선포하신다.²⁸⁾

26) 다니 7,13 :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27) 시편 110,1 : 주님께서 내 주군께 하신 말씀.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28)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5쪽, 각주 59 참조.

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신다.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고백하고 증언하는 이들이다.

65 그때에 대사제가 자기 겹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²⁹⁾

66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³⁰⁾

1)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으셨지만, 당신께서 신적 지위에 해당하는 존엄성을 지니셨다고 하심으로써, 그 대답이 신성 모독으로 판결되는 것이다.³¹⁾

2)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나 극심한 재난에 직면했을 때 비통한 감정이나 슬픔, 걱정을 표현하는 관습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점차 통회하는 표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가식적인 회개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조롱하다(마르 14,65; 루카 22,63-65)

67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68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최고 의회 의원들이 직접 예수님께 능욕을 준다.³²⁾

29) 민수 14,6-7 : 그러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저 땅은 정말 무척이나 좋은 땅입니다.

2사무 13,19 : 타마르는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자기가 입고 있는 긴 겹옷을 찢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은 채 울부짖으며 계속 걸었다.

에즈 9,3 :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의복과 겹옷까지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뉘을 잃고 앉아 있었다.

욥 1,20 :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예레 36,24 :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30) 레위 24,16 :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예레 26,11 :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3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5쪽, 각주 63.

32) 이사 50, 5-7 :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욕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마르 14,66-72; 루카 22,55-62; 요한 18,15-18.25-27)

- 69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 70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 71 그가 대문개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이는 나 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 72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 73 그런데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하고 말하였다.
- 74 그때에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 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 1) 베드로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서도 자기의 신앙을 부정한다.³³⁾ 예수님께서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한다. 예수님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뜻한다.
- 2)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조건부로 저주하는 것을 뜻한다. 곧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면 하늘에서 오는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³⁴⁾
- 3) 베드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다.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한 것이다. 이 통회의 눈물은 이제 베드로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변화시킨다. 주님의 은혜이다.

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33)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5쪽, 각주 65.

34)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56쪽, 각주 69.